

재일 한국인의 의식에 관한 연구

정 찬 원*

I. 연구 목적

일본 거주 한국인 즉,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 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실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의 탐색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본 연구를 행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설정 없이 직접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재일 한국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일상생활 면에서 취하는 태도와 일본사회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조사하며, 둘째, 이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행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

견과 요망사항 그리고 재일 한국인 사회의 미래에 관한 전망 등을 보며,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정책 관련, 이들이 한국정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가로 정하였다.

III. 연구 방법

위에서 말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 바, 이를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표본의 수는 500명 정도로 계획하여, 미 회수분, 미완성 조사표를 감안, 재일 한국인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민단계 조직 구성원(4개 단체)과 재일 한국인 연합회 회원(뉴 커머

* 전 주 나고야총영사,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실장

회) 그리고 일반 민간인인 재일한국인 등 6개 그룹으로 하였다.

민단계 조직 간부의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연령층이 높은 민단 간부와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간부, 이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은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 간부(18세~30세)와 재일 한국청년상공회 간부(25세~45세) 등 4개 그룹으로 선별한 유층적 표집(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간부 250명,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전국 간부 124명,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 간부 50명, 재일 한국청년상공회 전국 간부 76명 등 민단계 조직 간부 500명과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 200명, 일본 120개 시, 군 거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 300명 등 1,000명에게 배포하였다.

자료 배포 및 회수는 민단 전국 간부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 본부가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 간부는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중앙본부,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전국 간부 및 재일 한국청년상공회 전국 간부는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연합회, 재일 한국인 연합회 회원은 동 연합회의 사무국이 하였으며,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우편을 이용했다.

회수 결과를 보면 민단 전국 간부 197명, 재일 한국상공회의소 전국 간부 72명, 재일 한국청년상공회 전국 간부 76명, 청년회 전국 간부 46명,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 42명,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 69명으로 전체 502명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다.

설문지 배포는 재일본 한국인연합회는

2009년 6월 22일, 민단, 청년회, 청년상공회는 2009년 6월 25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2009년 6월 7일에 우송하였으며, 회수일은 재일 한국상공회의소와 청년 상공회, 청년회는 2009년 7월 22일, 일반 민간인인 재일 한국인은 2009년 8월 10일, 재일 한국인연합회는 2009년 8월 20일, 민단은 2009년 10월 9일에 회수되었다.

2. 자료 분석

회수된 조사 자료는 사회조사 분석 전문기관인 (주)리스 피아르 조사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 조사 응답자 6개 그룹별로 문항별로 빈도수 및 백분율을 계산, 이를 집계한 후, 최종적으로 재일 한국인 수치를 동 조사연구소에서는 작성하였다.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기본 속성을 보면,

(1) 응답자의 구성은 남성 348명(69.3%), 여성 150명(29.9%), 세대별은 2세가 220명(43.8%), 3세 157명(31.3%), 1세 55명(11%),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 42명(8.4%), 4세 16명(3.2%) 순이다.

(2) 조사 응답자의 출생국은 일본이 380명(75.7%), 한국이 117명(23.3%)이다.

(3) 도일시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980년까지가 59명(11.8%), 1980년 이후 31명(6.2%), 해방전~1945년 8월 15일 이전 22명(4.4%)이다.

(4) 연령은 40~44세가 61명(12.2%), 50~54세 56명(11.2%), 25~29세 55명(11%), 70세 이상 51명(10.2%), 65~69세

48명(9.6%), 35~39세 47명(9.4%), 55~59세와 60~64세가 각각 46명(9.2%)이다.

(5) 학력은 대졸이 211명(42%), 고등학교 졸 157명(31.3%), 전문대학 및 단대 졸 62명(12.4%), 중학교 졸 28명(5.6%), 대학원 졸 23명(4.6%)이다.

(6) 직업은 자영업 190명(37.8%), 회사원 168명(33.5%), 관련단체 직원 55명(11%), 전업주부 26명(5.2%)이다.

(7) 연간 수입은 300만 엔 이하가 66명(13.1%), 301만 엔~500만 엔 이하가 64명(12.7%), 501만 엔~1,000만 엔 이하가 58명(11.6%), 1001만 엔~1,500만 엔 이하 17명(3.4%), 1501만 엔 이상 40명(8%), 무응답자 257명이다.

(8) 결혼관계는 기혼자 388명(61.8%), 미혼자 106명(21.1%), 기혼자 중 동족간 결혼 310명(79.9%), 일본인과의 결혼 73명(18.8%)이다.

(9) 한국에 친척이 있다 449명(89.4%), 이들 중 319명(71%)이 친척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0) 한국어 구사능력에 관해서는 간단한 회화만 능력이 141명(28.1%), 대체로 말한다 89명(17.7%), 잘 말한다 132명(26.3%)으로 회화가 가능한자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다.

(11) 한국어 수확정도는 전혀 수확하지 않음이 261명(52%), 수확경험이 있다가 232명(46.2%), 수확기간을 보면 12년 이상이 87명(17.3%), 1년 미만이 46명(9.2%), 3년 미만이 44명(8.8%), 6년 이상 12년 미만이 23명(4.6%), 3년 이상 6년 미만 26명(5.2%)이다.

(12) 한국방문 유경험자가 487명(97%),

이 중 1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254명(52.5%)에 달하였고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14명(2.8%)이었다.

IV. 설문 내용

설문지는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30개 항목과 조사 응답자의 속성을 묻는 16개 사항을 포함, 전체 46개 질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사항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거주 경위 (2) 갖고 있는 이름 (3) 주로 사용하는 이름 (4) 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5) 본명을 사용해도 사회 활동상 지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6) 한국 방문 시 사용하는 이름 (7) 외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유무 (8) 채용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유무 (9) 국적문제로 마음을 상한 일의 유무 (10) 일본에 대한 친밀감 유무 (11) 일본에 귀화 의사 유무 (12) 귀화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 (13) 자녀 귀화에 대한 의견 (14) 일본에 귀화한 동포에 대한 의견 (15) 향후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될 때 귀화자수의 전망 (16) 일본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 (17) 20년 후의 제일 한국인 사회의 전망 (18) 민단 추진사업 참여 여부 (19) 대한민국에 대한 친근감 유무 (20) 한국 정부가 제일 동포들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 (21)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22) 필요 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 (23) 한국어 교육 관련 한국정부가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

워해야 하는가? (25) 재외동포 네트워크 추진사업이 재외동포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는가? (26) 재외동포 네트워크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27)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28) 현재 일본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 하는가? (29)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 하는가? (30)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재일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31) 조사대상자의 성별 (32) 조사대상자의 세대 (33) 조사대상자의 출생국 (34) 조사대상자의 도일 시기 (35) 조사대상자의 연령 (36) 조사대상자의 학력 (37) 조사대상자의 직업 (38) 조사대상자의 연 수입 (39) 조사대상자의 결혼관계 (40) 조사대상자의 한국 친척 관계 (41) 친척과의 연락여부 (42) 한국어 구사능력 정도 (43)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44)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간 (45) 한국 방문 유무 (46) 한국 방문 횟수 등이다.

V. 연구 결과

1. 재일 한국인의 생활 실태면

가. 일상 생활 및 태도

(1) 갖고 있는 이름

본명(한국식 이름)만 갖고 있는 경우 25.4%, 본명과 통명(일본식 이름)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74.6%로 나타났다.

1세의 경우 본명만 갖고 있는 경우 48.1%, 본명과 통명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51.9%로 나타났으나, 2세와 3세는 본명과 통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의 경우 본명만 갖고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다.

(2) 주로 사용하는 이름

통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본명을 사용한다 59.7%로 가장 많았으며, 본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24.5%, 본명만 사용한다 8.7%, 통명만 사용 7.1% 순이다.

재일 한국인연합회 회원의 경우 본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72.7%였다.

(3) 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교제할 경우 본명보다 통명이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 38.2%, 본명을 사용할 경우 사회생활 상 외국인으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10.8%로 나타났다.

(4) 본명을 사용해도 사회활동 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본명만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68.7%였고 그래도 통명을 사용하겠다는 31.3%였다.

(5) 일본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 실시 등 일본사회를 위해 보통으로 참가하고 있다 69.7%,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7.2%, 참가하고 있지 않다 13.1%로 나타났다.

나. 일본사회에서 체험했던 일

(1)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 유무 :

지금까지 일본에서 회사,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취직을 희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 19.5%, 없다 80.5%였다. 1세에 비해 2세대 이상은 원서접수 또는 채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다소 높았다.

(2) 채용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치부서 및 승진 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6.3%, 없다 93.7%였다.

(3) 국적문제로 마음을 상한 경험이 있다 55.6%, 없다 44.4%였으며, 마음을 상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놀림, 멸시 56.6%, 경제적 법적 사회적 차별 33.5% 등이었다.

2. 재일 한국인 의식면

가.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견

(1) 영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선거권을 부여한 후 피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8.5%, 선거권만

부여하여야 한다가 16.4%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6.3%나 되었다.

(2) 일본 귀화 의사 유무

일본에 귀화할 의사가 있다 21.7%, 없다 78.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년 민단중앙본부 조사 결과인 귀화 의사가 없다 43.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귀화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한국인이므로 42.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6.4%였다. 귀화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일본에서 영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는 사회활동상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자녀 귀화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다 72.7%, 찬성 14.5%, 반대 12.8%였다.

(4) 일본에 귀화한 동포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70%, 좋다고 생각 한다 16%,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7.2%, 매우 좋다고 생각 6.2%,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0.6%로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보면 귀화한 동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편이 많았다.

(5) 일본에 대한 친밀감 유무 :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44.1%,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39.1%,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2.8%, 그다지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3.4%, 전혀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0.6% 순으로 나타나,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3.2%였다.

(6) 현재 일본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평가 :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32%, 불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31.2%, 그런대로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19.9%, 매우 불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12.5%, 매우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2.1%로 불충분 하다 43.7%, 충분하다 22%였다.

(7) 개선해야 할 사항 :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참정권 40.7%, 취업 19.3%, 의식 개선 14.7%, 법적지위 14%, 사회적 지위 12.7%, 복지 10.7%, 교육 7.3%, 역사교육 6.7%, 행정 3.3%, 인권 2.7% 순이었다.

(8) 한국에 대한 친근감 :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49.9%,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39.2%,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 7.6%, 별로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2.6%, 전혀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일 한국인 1세의 경우 한국에 대해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가 68.5% 이며, 2세, 3세로 갈수록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 20년 후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 대한 전망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재일 한국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체가 거의 없어 질 것이다 42.1%, 지금과 마찬가지로 질 것이다 26%, 잘 모르겠다 21.7%, 지금보다 결속된 사회가 될 것이다 10.2% 순이었다.

3.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

가. 한국정부가 재일동포들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

정부가 일본거주 재외동포를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는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한민족 문화 행사 등 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한 사람이 66.7%, 한국정부 지원 재일 동포 대상 투자지원 센터 설립 7.8%,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정보제공 6.7%, 거주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 4.5%, 무료 의료 봉사 활동 1.9% 거주국 정부와 재외동포 관련 협력 강화 1.7%, 직업훈련 사업의 확대 1.5%, 한국기업의 합작투자 진출 장려 1.1%, 방문 취업제 확대 0.9% 순이었다.

나.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나 한국문화 교육 필요성 유무

필요한 편이다 40.7%, 매우 필요 하다 45.5%, 보통이다 11.9%, 필요 없는 편이다 1.2%, 전혀 필요 없다 0.6%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6.2%였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

같은 민족 또는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78.2%, 향후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알아야 사회생활에 유리하기 때문에 15%, 기타 6.8% 순이었다.

라.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재정지원 51.5%,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램에 대한 지원 19.8%,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지원 19.6%, 어학 실습장비 지원 3.2%, 교재지원 2.8%이었다.

마. 재외동포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재외동포 사회 발전기여 여부

어느 정도 발전이 기대된다 52%, 매우 발전이 기대된다 19%, 보통이다 18.2%, 별로 발전할 것 같지 않다 0.4%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바. 재외동포 네트워크화를 위한 정책

전 세계 재외동포의 네트워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류형태 다각화 19.7%, 재정지원 및 의식개선 각 6.3%, 단체지원 및 교육강화 각 4.7%, 홍보 3.9%, 문화교류 3.1% 순으로 특히 교류형태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연령별, 국가별로 여러 방식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개인적으로 주변 현지인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33.3%, 자기가 속한 단체나 기관에서 때때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소식 등을 알려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32.4%, 한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의향이 있으나 자료나 정보, 예산 등이 부족 하여 하고 있지 않다 15%, 한국에 대한 홍보 보다는 일본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8.1%, 기타 11.2%였다.

아.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활동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일 본지역의 재외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서는 정체성 확립 12%, 홍보 11.4%, 문화전파 10.8%, 질서준수 8.9%, 정부 역할 촉구 및 자기개발 각 5.7%,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5.1%, 민단강화 및 민간교류 각 4.4%, 한국 제품 구매 및 역사이해 각 3.2%, 한국어 사용 및 교육 2.5%, 의식개선 1.9% 순이었다.

Ⅵ. 요약 및 결론

1.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

가. 이름(본명과 통명) 관련

4명 중 3명이 본명(한국이름)과 통명(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1명 만이 본명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통명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본명을 사용 한다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이었다. 이와 같이 통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는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과 교제할 경우 본명보다 통명이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1.4%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한다 38.2%였다. 그러나 본명을 사용하더라도 사회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본명만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68.7%에 달하였다.

나. 불평등 인식 및 경험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 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19.5%였으며, 2세, 3세, 4세로 내려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취직 후 근무부서 배치 및 승진 등에

있어서 불평등 경험은 6.3% 정도이며 젊은 세대일수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적 및 귀화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인 55.6%가 국적문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으로의 귀화의사는 대부분(78.3%)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를 세대별로 보면, 재일 한국인 1세의 경우 12.7%만이 귀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세(19.2%), 3세(29.3%), 4세(38.5%)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일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일본에 대한 친밀감

5명 중 4명이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1세보다는 2세, 3세 등 세대가 내려 갈수록 친밀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 참정권 부여

지방 참정권(선거권) 부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86.3%나 달하였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인 투표권이 이들에게 조속히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일본사회 참여정도

응답자의 87%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위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재일 한국인 처우에 대한 평가

현재 일본 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처우는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이 22%였으며, 불충분 하다고 한 사람이 43.7%로 약 2배 정도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더 높았다.

3.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대 한국 친근감

응답자의 약 90%가 한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세대별로는 1세가 가장 높은 반면, 점차 세대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친근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필요성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86.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

응답자들은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변 현지인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33.3%, 자기가 속한단체나 기관에서 때때로 현지인들에게 한국 소식 등을 알려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32.4%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 재외동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체성확립 12%, 홍보 11.4%, 문화전파 10.8% 순이었다.

라. 한국어 교육 관련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로서는 재정지원,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지원, 한국어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을 들었다.

마.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전망

재외동포 사회발전을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이 기대된다고 한 사람이 응답자의 71%였다.

바. 한국정부가 재일 한국인을 위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일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한민족 문화행사 등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국정부 지원 재일동포 대상 투자

지원 센터 설립,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정보제공 등이었다.

VII. 제 언

이번 재일 한국인 의식조사에 있어서 특히 표본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향후 조사는 재일 한국인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필요하고 아울러 민단계 동포뿐만 아니라 조총련계 동포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설문조사 응답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사회와 한국정부에 요망하고 있는 사안들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외 교**